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제4회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포럼 기조강연



고려대 명예교수

김용준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밤의 어둠 속으로 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하나님 가라사대 뉴턴 있으라 하시매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 아이작 뉴턴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명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지은 뉴턴의 추모시의 첫머리다. 바로 이 시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뉴턴 이전의 시대는 밤의 시대였다. 암흑의 시대였다. “뉴턴 있으라 하시매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 그대로 뉴턴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이 밝아진 것이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근대사 교수였던 버터필드 경(Sir Arbert Butterfield)은 1949년에 「근대과학의 기원, 1300-1800」(The Origins of Modern Science)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양문화사에서 과학이 한 역할을 생각할 때 조만간 자연과학의 역사가 그 자체로서 또는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인문학(the Arts)과 자연과학(the Science) 사이의 교량 역할로서 얻게 될 중요성에 관해서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물론 평범한 〈일반사학자〉(general historian)가 여느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생한 최근의 문제를 끄집어 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두 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위해서 극히 중요한 분야가 보다 더 다루기도 쉽고 또한 역사가 자신의 개입이 보다 더 필요하게 된 분야가 등장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분야가 〈과학혁명〉이며 이는 16,7세기와 관련되어 있으나 틀림없는 연속 속에서 훨씬 그 이전의 시기에까지 그 줄이 닿아 있다. 그러한 혁명이 중세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자연과학의 권위를

이념기사
3/1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그것은 스킨라 철학의 쇠퇴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의 파멸로 끝났기 때문에-그리스도교의 대두 이래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단순한 막간극 정도로 즉 그리스도교 체제 내부에서 서로 자리바꿈한 정도의 사건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과학혁명이 물질계의 전경(全景) 및 인간 생활 자체의 구도를 바꾸어 놓는 한편 정신과학의 탐구에 있어서까지 인간의 사고습성을 변화시킨 이래, 그것이 근대세계 및 근대정신의 진정한 기원으로서 너무나 큰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으로 관습적인 유럽사(史)의 시대구분은 한갓 시대착오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이상의 버터필드의 글은 1952년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힐 때까지의 약 2백년간의 시대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이라는 저서의 발간을 둘러싼 소위 과학과 종교 간의 싸움과 그 경위는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발제의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에 앞서 17세기의 과학혁명을 전후하여 소위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여기서는 몇몇 개설적인 문헌소개로 대신할까 한다. 1984년에 대우학술총서로 발간된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의 저서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출현과 그 배경」(민음사, 1984)의 제 9장에서 「과학혁명과 종교」라는 제목 하에 약 15쪽 정도의 짧은 글에서 매우 간결하게 그러나 충분한 문헌을 소개하면서 소위 과학과 종교 사이의 여러 논점이 요약되어 있다. 위에 소개한 김영식 교수의 저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독교 입장에서,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논한 글은 필자의 출처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돌베개, 2005)의 제4장 「과학혁명과 기독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17세기의 과학혁명은 15세기의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17세기의 과학혁명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질점의 운동계로 보았을 때 그 물체 내지는 천체의 운동법칙을 발견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물리과학의 혁명이었는데 반해 1952년에 발표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의 이중나선구조의 발견이 생명과학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발달된 뇌과학(Brain Science)과 인지과학의 역사를 더듬는 일은 또 하나의 방대한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다. 너무 정리되지 않은 글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나의 출처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제4부를 참조해 주시면 다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최근에 발간된 몇몇 저서에 나타난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라는 저서를 내놓음으로써 일약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1995년에는 「과학의 일반적 이해」(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를 위한 찰스 시모니(Charles Simony)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작년 말에 「망상의 신」(The God Delusion, Houghton Mifflin, 2006)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출판계에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자신의 학문적 업적에서가 아니라 자연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잘 이해시켰다는 공로로 석좌교수직을 차지할 정도로 별난 학자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그의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이기적 유전자」가 출판된 지 12년이 경과한 1989년에 개정판 서문에서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과학과 과학의 대중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문헌에만 나타나 있는 관념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여기에는 얽히고설켜진 새 언어에 대한 통찰력과 은유를 파악하는 힘이 필요하다. 참신한 언어와 은유를 끝까지 파고든다면 새로운 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관점은 과학에 독창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나는 도킨스의 이와 같은 글에서 제이콥 브로노프스키(Jacob Bronowski)가 그의 「인간을 묻는다」(개마고원, 2007)〈The Identity of Man〉라는 저서에서 모든 생물은 같은 종 사이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수단, 즉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생물 종에게는 이와 같은 언어 이외에 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는 사고(思考)를 위한 언어이며 바로 이 사고를 위한 언어가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상된다. 여하튼 도킨스는 그의 새로운 저서 제5장에서 최근에 출간된 수많은 진화론적 차원에서 서술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저서들을 섭렵하면서 〈어떤 것의 부산물로서의 종교〉(Religion as a byproduct of somethingness)를 논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somethingelse)을 자기 자신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밈〉(meme)에다 귀착시킨다. 즉 〈종교의 밈 이론〉(The memetic theory of religion)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자들은 「이기적 유전자」의 제11장 〈밈-새로운 자기복제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도킨스가 의도하는 결론은 종교는 문화적 부산물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흔히 도덕성이 종교의 뿌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킨스는 일침을 놓는다. 작년에 출간된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크 하우저(Marc D. Hauser)의 「도덕적 마음」(Moral Minds: How nature designed our universal sense of right and wrong,

Harper Collins, 2006)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하우저가 내린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되어온 우리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 도덕률〉(Universal moral grammar)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 그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데 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손을 든다. [3]2005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종교의 미래」(The Future of Religion)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의 석좌교수이고 세계적으로 네오프라그마티즘 철학을 주창하는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박사는 〈반교권주의와 무신론〉(Anticlericalism and Atheis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로 마무리하고 있다.

〈어떻든 나와 바티모(Gianni Vattimo)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는 가톨릭 신도로 성장해 왔지만 나는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러나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교적 열망이란 인간문화 형성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편타당성 앞에서 완전히 종교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진리 또는 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인간의 모든 생체조직 안에 이미 하드웨어로 선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진리라던가 신에 관한 문제의식은 인간문화 형성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포용한다면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매우 자연스럽게 적절한 일이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티모 같은 사람들이 나같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을 한낱 비천한 상징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생각을 멈추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철저한 느낌을 가지고

이념기사
3/1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무식한 고집쟁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접고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바티모와 다른 점은 바티모는 과거의 사건들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서 나는 거룩은 이상적인 미래에 비로소 깃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티모는 현재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의 주(主)가 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자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생각하고 있고 그의 거룩한 느낌은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사람과 사건의 회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나의 거룩에 대한 의미는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먼 훗날에 우리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사랑만이 오로지 법으로써 역동하는 전 지구적인 문명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는 바람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그 어떤 계급이나 신분의 차등을 완전히 넘어선 어떠한 지배도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의 교양인과 충분한 교육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완전 합의체로 구성된 이상적 사회를 꿈꾸게 된다. 나는 이러한 사회가 과연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신비(Mystery)일지도 모른다. 이 신비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성육신화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는 베티(better)가 베스트(best)를 넘어서는 이상향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는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있을 수 없는 이상향일 것이다.>

위의 글은 로티의 글을 내 나름대로 재구성한 의역 문장이지만 로티가 꿈꾸는 네오프라그마티즘이 지배하는 종교의 미래상이라고 보아서 대과는 없을 것 같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는 「무신론자 선언」(Atheist Manifesto: The Case Against Christianity,

Judaism and Islam by Michael Onfray)이라는 저서에서 <기독교 무신론>(Christian Athesim)이라는 말이 나온다. 로티야말로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출처 : 2007년 3월 5일, ©Science Times